



마음 놓고 숨 쉬고 싶다 15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전대학교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의 하늘이 뿌옇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날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 단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16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신설학교 10곳 중 4곳은 ‘텅텅’

개교 3년후 정원 70% 못채워

수요예측 오류...교육청 재정 악화

포폴리즘성 신설 등 지양해야

최근 광주지역 신설 학교 10곳 중 4개 학교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신설 11개교 가운데 1개 학교가 정원 미달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다녀온 따르면 지난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신설한 광주의 학교 수는 모두 10개교다. 이 가운데 개교 3년 후인 2013년~2016년까지 실제 학생 수 비율(학생수용률)이 70% 미만인 학교는 선운초·선운중·효천초·선운중 등 모두 4개교다.

연도별로 정원 70% 미만 학교는 ▲2014년(2012

년 개교 기준) 2개교 중 1개교(21.7%) ▲2015년 (2013년 ~) 2개교 중 1개교(50.0%) ▲2016년(2014년 ~) 4개교 중 2개교(50.0%) 등이다.

전국외국인 생활 미달 신설학교 평균비율은 21.7% (2014년)·37.7% (2015년)·43.6% (2016년)로, 광주 의 평균이 전국보다 높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는 개교 3년 후 계획 대비 실제 학생수용률이 70~130%인 경우 적정으로 보고 70% 미만을 과소수용으로 보고 있다. 과소수용은 학생 수용예측이 잘못됨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모두 11곳의 학교를 신설했으며 이중 과소·과대수용(정원 미달) 학교는 단 1곳 뿐이었다.

광주의 경우 10개교 중 4곳이 수용예측 예측이 빗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질구벽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규모의 학교 신설 등 육성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

안하면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학부모들의 무리한 학교 신설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측과 달리 선운·호천 지구에 조성될 공동주택개발이 지연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놓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광주·전남 79명 숨져

총 284명 신고...전국 5955명 피해 1292명 사망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슴가살군제 피해자 4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가슴가 살군제 피해신고는 광주 159명, 전남 125명 등 총 284명이다. 이 중 광주 38명, 전남 41명 등 총 79명(27.8%)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광주 23명(사망 6명), 전남 14명(사망 4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년 동안 614명(사망 110명)이 '가슴가살군제 피해를 봤다'고 추가 신고, 피해자 수는 총 5955명(사망 1292명)으로 늘었다.

경기도가 1798명(사망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26명(사망 284명), 인천 436명(사망 104명), 부산 321명(사망 79명), 대구 274명(사망 45명) 순으

로 인구수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가슴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해외로 이주했다 한 해외에서 가슴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17건(상기 3명)에 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오는 2월까지 피해신고자는 600명, 사망자는 1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가슴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10%에 달하는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피해접수는 전체 1~2% 수준으로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

해진

07:40

17:44

달뜰

달질

06:46

17:07

우산 챙기세요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5~20mm.

◇ 지역별 날씨 (℃)

광주	차차흐려져 비	3/8	보성	차차흐려져 비	0/9
목포	차차흐려져 비	4/8	순천	차차흐려져 비	3/9
여수	차차흐려져 비	5/9	영광	차차흐려져 비	0/7
나주	차차흐려져 비	0/8	진도	차차흐려져 비	5/10
완도	차차흐려져 비	5/11	전주	차차흐려져 비	1/8
구례	차차흐려져 비	-1/9	군산	차차흐려져 비	-2/8
강진	차차흐려져 비	2/11	남원	차차흐려져 비	-2/8
해남	차차흐려져 비	2/11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5/8
장성	차차흐려져 비	-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북~북동	0.5~1.5
	먼바다	동~남동	0.5~1.0	북서~북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남동~남	1.0~1.5	남~남서	1.0~2.5
	먼바다(서)	남동~남	1.0~2.0	남~남서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55	01:24
	19:38	14:16
여수	02:27	09:10
	15:12	20:59

◇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3/9	1/9	-3/8	-4/8	-3/8	0/6	-2/4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충청

강릉

제주

부산

대구

독도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전남대 생협 중고 전공책 시장 연다

학생 부담 완화...3월 한달간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의 책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교재 시장을 연다.

전남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2018년 1학기 교재에 맞춰 오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이사회·대학생회관 내 서점에서 중고 전공교재를 판매한다.

전대 생협은 판매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8일(수)까지 서점 현장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중고 전공교재 접수를 받는다.

판매 대상은 2017학년도 1학기에 사용한 전공교재이며, 가격은 책의 상태에 따라 판매 의뢰자

와 상의에 책정한다. 판매된 책값은 접수 시 기재
해 놓은 의뢰자의 계좌로 송금된다.

전대 생협은 지난해 2학기 처음 시도해본 중고
전용교과 판매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대물림’하는 건전
한 대학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정성택 생협 이사장은 “새 학기가 되면 등록금
을 포함해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학생들이 중고
교재를 구입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 “선배들이 사서만 책을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장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 시민단체와 대화”

“전국 보안수사대 27곳 인권 친화 공간 개선”

이철성 경찰장정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당해 숨진 것 지안본부 남영동 대공본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을 시민들에게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실정법 시행 법원에서 죄대만 열린 자세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정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유재산과 리베상 국가시설을 민간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그들들이 운영하거나 경찰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협이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배는 옛 남영동 대공본실 운영을 시민사회에 넘겨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기관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정장은 “현재 연례행사도 인권영화제를 열
고 있지만 이를 다채롭게 하고, 시설 자체를 옮길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하고 위
회감을 느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얼마
든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정장은 예 남당도 대공본실 운영과 관련해
바측청기법사들을 등 단체들을 이끌 준순 이후
만나 의견을 들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27개 보안수사대 분실 중
날을 읍습한 느낌을 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
는 시점은 답을 늦추는 등 최대한 완화하는 등
고 개선하겠다고 이 정장은 덧붙였다. / 연합뉴스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사길 62 Tel. 061)542-8933

(주)벌교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185-95 Tel. 061)745-9907

샬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황곡면 어시로길 10 Tel. 1577-8885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건미역 250g **3,800 원**



해산물세트 **17,000 원**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제품 설명

-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함.
- 물을 붓고 졸을 잡아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히팅죽 소고기맛 **4,500 원**
히팅죽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진



샬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현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윤안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샬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조개분말(개당) **7,000 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PNAP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